

지방소멸 대응형 복합문화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plex Cultural Space in Response Local Extinction

○ 손 보 림*

Son, Bo-Rim

김 희 근**

Kim, Hee-Keun

Abstract

The outflow of population from provinces and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s are overcrowded compared to the land area, which worsens the job and housing market in the metropolis.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resolve the imbalance between the city center and the countryside, but unsuccessful, and the reality is that a meaningless war of attrition is taking place as regions compete for population inflow.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consumption culture of young people with the ripple effect of modern citi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suggesting effective alternatives to ensure continued circulation and survival based on the unique scarcity of the region.

키워드 : 지방소멸, 복합문화공간, 지역 활성화, 소비문화, 지속가능성

Keywords : Local Extinction, Complex Cultural Space, Regional Vitalization, Culture of Consumption, Sustainability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도시는 급격한 사회발전을 이루었고, 현재는 저성장·인구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듯, 저성장,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도시는 '지방소멸'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기존의 쇠퇴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였다. 또한, 2014년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Masuda Hiroya)는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직면한 지방 위기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국토불균형,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지역 현안이 아닌 인구 부풀리기식의 계획안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은 정부의 정책 중심이 아닌 지역 현안을 고려한 다양한 개발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소멸에 대응 가능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목적을 둔다.

*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학사과정

**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Dong-Eui University, hkkim62@deu.ac.kr)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국내·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평가 혹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의 등장배경과 함께 국내·외 현황분석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둘째, 현대사회의 소비문화를 이끄는 세대, 이른바 MZ세대의 소비문화 양상과 다양한 측면에서 사례들을 분석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적 역할을 하는 국내·외 사례를 선정하고, 사회적·도시적 관점에서 복합문화공간의 특성을 도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지방소멸 배경 및 현황

지방소멸¹⁾이란 용어는 일본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地方消滅)(2014)』에서 등장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 사회적·도시적 문제와 청년층의 지역 이탈로 인해 노년층의 비중이 과도한 소산다사(小産多死)의 현상을 초래하였다.

다수의 서양 국가는 19세기 산업화를 이루면서, 인구가 폭발하였으나 20세기 제조산업이 쇠퇴하며, 도시쇠퇴 및 인구감소 지역이 생겨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 20세기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산업이 도시를 이끌었으나,

1) 지방소멸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유출)에 따라 과소지역화 또는 무거주지역화가 되는 지역 현상을 의미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 되자 파업을 비롯한 노동 투쟁, 공장 이전 등으로 인한 산업 중심의 경제기반이 상실되었다. 또한, 21세기에는 주요 산업도시의 전통적인 기반인 제조업이 저조해지며, 경제활동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85개 도시 중 31곳에서 인구가 감소하였고,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도시는 10%이상 인구가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²⁾를 맞이하였고,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50.4%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비수도권의 인구비율은 49.6%로 전 국토의 면적 대비 비이상적인 수치이다. 이는 지방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빈집, 폐교 등이 증대해지고 도시와 농촌 곳곳에 천공현상이 나타나고 동시에 생활인프라의 접근성이 취약해져 노후화와 유희화 문제가 극심해진다. 향후 그 비중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1. 인구 데드크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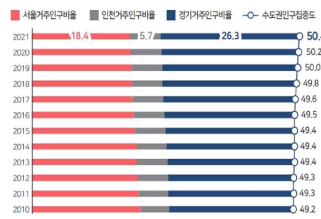


그림 2. 수도권 인구집중도(%)

이러한 통계자료 및 마스다 히로야(2014)의 지방소멸지수³⁾를 토대로, 산업연구원(2022)은 인구를 유인하는(pull) 또는 밀어내는(push) 요인인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표1]과 같은 정량적 지표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소멸위기로 산정된 국내의 지역은 [표2]와 같다.

표1. 산정 지표

명칭	지방소멸 지수	지역수	비율	
소멸무관	1.50 이상	15	7	
소멸안심	1.25~1.50	66	29	
소멸예방	1.0~1.25	31	14	
소멸선제 대응	0.75~1.0	57	25	
소멸 위기	소멸 우려	0.5~0.75	50	22
	소멸 위험	0.5 미만	9	4
소계		228	100	

표2. 지방소멸 위험지역(2022)

지역	지방소멸 위험도	
	지수	순위
전남 신안군	0.088	1
인천 옹진군	0.161	2
경북 울릉군	0.328	3
경남 의령군	0.441	4
경북 봉화군	0.451	5
강원 고성군	0.468	6
경북 청송군	0.473	7
경북 영양군	0.473	8
전남 구례군	0.486	9

그간 국토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들을 인구성장이라는 대전제로 해결하고자 한 도시들이 많았다. 특히, 지방소멸 방지와 관련한 대응 정책⁴⁾은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4차례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2) 인구 데드크로스는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면서 사망자 수보다 적어져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3)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젊은 여성(20~39세) 비율로 산정한다.

4) 김현호,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정책브리프 제131호, 2021.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 이 또한 출산 장려금이라는 대목이 보여주듯 출산과 육아 등 인구의 자연증가에만 초점을 둔 일회성의 대응책이라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03년 4월에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한 후, 2020년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2021년 6월 동법 시행령 개정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규정을 최초로 기재하고 있지만, 그 역할 및 영향이 미흡한 상황이다.

국가의 정책적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의 지방소멸은 일회성, 일방향적 정책이 아닌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속성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2.2 국내·외 지방소멸 개선방안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기존 국가의 역량에만 의존하던 도시개발방식과 다른 지역재생사업 정책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심에는 ‘민간 주도의 개발’이 있다. 민간에는 기업, 주민, 소상공인, 청년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지역전문가라고 판단된다. 이는 국가에서 주도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 중심 개발과 함께 지역 구성원이 중심이 된 ‘민간 주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 유럽, 미국, 싱가포르의 경우, 2000년대부터 PPP(민관협력)를 통한 자립형 지역재생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선정하여 활발히 추진 중이며, 국내에서도 기존 지역재생 사업의 한계 극복을 위해 PPP⁵⁾의 도입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⁶⁾ 세부적으로 나라별 운영방식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해외 민관협력형(PPP) 운영방식

	주요제도	설립단체	특징
미국	BID (부담금 관리 및 운영)	CDC /CBA	개발 잠재력이 높은 중심부 위주이며, 주민의 재무적 투자는 물론, 대규모 사업의 형태
영국	SRB (파트너십 의무화)	URC /RDA	
일본	국토교통성 (보조금 제공)	MINTO	초기,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하여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좀 더 개방적인 형태

미국·영국·일본은 기존 공공 및 지자체에 의존하며 지역 재생을 진행해왔던 한국과는 다르게 공적인 모델이 아닌 지역의 수익과 공공성이 결합된 모델로서,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있다.

2.3 현대소비문화의 특성

현대 도시는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거듭하며, 소비의 욕구가 다양한 문화산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시대에 태어나 성장한 현재 청년층의 소비행태는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현 20·30세대는 미디어에

5) 윤주선(2017)은 PPP형 지역재생을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행정이 제공하는 비수익성 공공시설과 수익성 민간시설을 공유재산 부지 내에 병설하고 수익성 민간시설의 수익 일부로 비수익성 공공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는 형태라고 설명한다.

6) 윤주선,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자립형 도시재생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7.

능숙하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 익숙하다.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던 기성세대와 달리, 소비에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자기표현의 한 형태로써 온라인이라는 무대에 소비를 과시하기도 한다. 개개인의 가치관과 소비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 소비문화의 행태는 플렉스(Flex) 소비⁷⁾와 가치 소비(Meaning-Out)⁸⁾가 대표적이다. 합리적이면서도 자기표현의 심리적 기저를 바탕으로, 과감한 가치 중심의 소비문화가 현 세대의 전반적인 특성으로 설명된다. 이를 문화적·정책적·지역적 측면으로 세분화하면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현대 소비문화의 특징

구분	특징	
문화적	윤리적 소비	기부상품소비, 제로웨이스트 등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며, 기업의 사회적 윤리와 도덕성에 대해 개인의 공감과 의견을 소비행위로 표현
	식음료 소비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식음료 문화가 발전하면서 SNS의 공유와 더불어 직접 경험하고자 여가생활의 일환으로 확대
	디깅 소비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희소성을 기반으로 성향에 맞는 문화예술의 경험과 체험적 소비
정책적	소비자	재사용 및 재활용 확대, 녹색 제품 구매 확대 등에 대한 소비자 자발적 실천중심
	정부	'K-ESG 가이드라인'과 CCM 인증 연계를 통한 기업 평가 지표 제공
	기업	스타벅스의 '일회용품 없는 매장' 혹은 오리온의 '친환경 트레이' 등 지속가능적 소비에 호응
지역적	양양 서퍼비치	5도2촌의 성공적 사례로, 서핑의 성지로서 이국적인 문화는 인구소멸 위기의 영양군의 인구를 증가
	경동시장	'노브랜드의 상생스토어 모델'을 통해 ESG 관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호감을 샀으며, 식당 매출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

4. 지방소멸 대응형 복합문화공간 국내·외 사례분석

4.1 문화중심형

(1) 웨스트번드 롱뮤지엄(WL)



위치	중국 상하이시	연도	2014
규모	BF2 - F2	건축가	Deshaus
용도	기존	현재	
	석탄 수송 부두	전시 및 도서관	

WL이 위치한 웨스트번드(WB) 지역은 WBCC⁹⁾의 일환으로 문화특구로 개발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상하이 세계엑스포 개막과 동시에 '황푸강 종합개발계획'을 시행하면서 2010년에 들어 대부분의 공장과 지방공장을 폐쇄하였는데, WB 프로젝트는 이렇게 유향화된 산업지대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¹⁰⁾ 특히, WL은 Middle Longh

7) 플렉스 소비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고 있지만, 자신이 정말 원하는 제품이거나 마음에 들면 가격과 상관없이 선뜻 고가의 물품을 소비하는 문화를 일컫는다.

8) 가치소비란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보여주는 소비문화를 의미한다.

9) West Bund Cultural Corridor의 약자 (WBCC)

10) 이지윤, 'Art Renaissance in West Bund Shanghai', Forbes, 2019.

ua Road Station과 Longteng Ave., Ruining Rd.의 교차점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황푸강 서쪽 약 11km의 거리에 조성되며 외부 공공공간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개방적인 문화시설로 계획되었다는 점이 우수하다. 또한, 탱크상하이, 유즈뮤지엄 등 문화예술시범구 내 문화시설과 연계한 활용 가치가 높다.

(2) 폰다치오네 프라다(FP)



위치	이탈리아 밀라노	연도	2015
규모	F4, 60m tower	건축가	램콜하스
용도	기존	현재	
	양조장	전시 및 광장	

FP는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프라다의 문화재단으로서 '프라다'의 브랜드 가치관을 건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지역적 측면에서 카페, 바, 시네마, 중정과 같은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공간 계획은 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이 편하게 머무르며, 문화적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우수하다.

4.2 상업중심형

(1) 미래농원(MN)



위치	대구시 북구	연도	2022
규모	F3, 2동	건축가	SoA
용도	기존	현재	
	조경농장 및 창고	카페 및 소정원	

MN은 대구광역시 북쪽에 위치하며, 시내를 벗어난 교외지역에 건립되었다. 유동인구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지 않음에도 방문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대 소비문화 행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기존 조경농장을 정원, 갤러리, 카페가 결합된 복합문화시설의 공간계획과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¹¹⁾을 통해 최근 지방소멸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2) 오노미치 U2



위치	일본 히로시마현	연도	2014
규모	F3, 2동	건축가	타니시리 마코토
용도	기존	현재	
	해상운송 물품창고	호텔 및 로컬샵	

U2는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산인 사이클(Cycle)을 활용한 사례이다. 'Cycle, Travel and Good things'를 테마로, 대도심과 대비되는 한적하고 여유로운 로컬브랜딩을 토대로 상업 및 숙박시설(호텔)이 결합된 복합문화시설이다.

오노미치에서 에히메현 이바리시까지 연결되는 약 70km의 자전거 코스가 사이클리스트 중심의 관광객을 확보한다. 그러나, 관광객만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오노미치 수로에 면한 사이클 카페, 베이커리, 라이프스타일숍 등 지역 주민의 관심도 끌어낼 수 있는 업종도 함께 유치했다. 또한, 공공의 지원과 장래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의 '마을재생활자'¹²⁾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하다

11)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에 의해 입소문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마케팅 방법을 말한다.

12) 마을재생활자는 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출자 등을 시행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4.3 교육중심형

(1) LA 컬버시티 프로젝트(CV)



위치	미국 LA	연도	2013
규모	13동 이상	건축가	에릭 오웬 모스
용도	기존	현재	
	영화산업단지	업무공간 및 공연	

로스엔젤레스 컬버시티는 1960년 MGM의 부지매각으로 인한 영화 산업의 쇠퇴로 유희지역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기존 창고, 공장 등의 활용성을 고려한 리노베이션과 건축가 에릭 오웬 모스(Eric Owen Moss)만의 건축언어가 적용된 마스터플랜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였다. 단순 사무공간이 아닌, 실험적인 공연을 유도하고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개방적 형태의 CV는 2014년 기준 창조산업¹³⁾의 총 직접 수입이 거의 11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창조산업 고용수준이 14.4%로 로스엔젤레스 지역 전체보다 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지역 내 창조적 교육허브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확증해준다.

4.4 소결

국내·외 사례를 문화, 상업, 교육중심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주요 분석내용은 아래의 [표5]와 같다.

표5. 사례분석 종합결과

구분	운영주체	특징
문화 중심형	WB 공공주도	개방적인 외부공간과 주변환경 및 시설과의 연계
	FP 민간주도	문화와 상업을 넘나드는 새로운 지역 산업의 조성
상업 중심형	MN 민간주도	농원의 컨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
	U2 민관협력	지역의 문화를 소비하며,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운영
교육 중심형	CV 민간주도	주민들에게 개방적이고 업무공간 및 문화공간의 성격에 따른 공간 계획

분석내용을 통해 3가지의 주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5개의 사례는 물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특히, WB는 황푸강변의 외부공간과 주변 문화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공공공간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다.

둘째, 지역경제의 지속성 있는 선순환 도시구조를 위해 지역 기반의 상업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MN과 U2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라이프스타일 및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지역 고유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내발적인 효과이다. 지역민의 경영과 소비를 통해 운영되는 U2처럼, CV는 업무공간과 함께 다양한 문화공간과 결합하고, 복합문화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5. 결론

현대사회에서 농어촌은 물론이고 중소도시마저 지방소멸위 기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이 계획되고 공공자본이 투입된 바가 있으나, 그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자립이 가능한 지속성 있는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사업모델이 필요하다. 공공 주도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 고유성 기반의 민-관 협력'의 유의미한 사업모델이 수립이 필수적이다. 과거 위탁 개념의 머무름이 아닌 지역 내 자생적 발전모델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인 수도권 집중현상과 청년층 이탈 방지를 위해 지방도시는 현대 소비문화 행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합리적이면서 과감하고, 가치 중심적 소비 행태와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회성 관광이 아닌 지속성 있는 방문객 유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지방소멸 대응형 복합문화공간 특성에 대해 정성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엘런 말라호, 김현정(역), 『축소되는세계: 인구도, 도시도, 경제도, 미래도, 지금 세계는 모든 것이 축소되고 있다.』, 서울: 사이, 2024.
2. 정운성, 『지역재생의 진실』, 서울: 썬크스마트, 2022.
3. 주대관, 『도시재생의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23.
4. 김현호,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정책브리프 제131호, 2021.
5. 윤주선,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자립형 도시재생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7.
6. 이금노, 「ESG 경영의 소비자 정책 이슈와 시사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제124호, 2022.
7. 허정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리츠 모델 개발 연구-주민참여형 재무투자기법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8. 백주원, 「스빅 효과는 잠깐... 함께 오래 과제남은 경동시장」, 서울경제, 2023.
9. 이지윤, 'Art Renaissance in West Bund Shanghai', Forbes, 2019.

13) 문화, 예술, 디자인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과 개인을 창조경제라고 정의하며, 이를 구성하는 미술, 패션, 디지털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제품 디자인 등 11개의 산업을 일컫는다.